

‘교회설립연월일 확정 문제’에 대한 회신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 교회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므로 귀 교회의 설립 연월일을 연화봉교회 설립 연월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 1936년과 1937년 전반기까지는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가 활동한 내용이 <감리회보>에 소개되어 있고, 1938년 2월 1일자에는 제3회 경남지방회(1937. 12. 29.-30)에서 청엽정교회 전도부인에 박현옥을 임명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어느 한 교회(용산교회)가 흡수한 후, 그 후 청엽정교회로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1937년 하반기에 두 교회가 대등하게 합치면서 행정구역 이름인 청엽정교회로 바꾸고 해방 후 다시 청파교회로 바꿨다고 봅니다.

2. 두 교회가 합친 후, 용산교회 예배당(청엽정 2정목 71-15)을 합친 청엽정교회의 예배처로 사용하였으므로 혹시 연화봉교회가 흡수 합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합병 후인 1938년 기독교 조선 감리회 유지재단 재산목록에, 청엽정교회 재산에 연화봉교회 구 예배당의 부지(청엽정 1정목 62-22)가 포함되어 있고, 1949년까지 청파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 또한 대등한 합병으로 보입니다.

3. 합병 후, 연화봉교회 교인의 상당수가 청엽정교회에 계속 출석하였던 점과

4. 연회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연회가 2년 주기로 열렸는데, 제6회(1937.4. 7-13) 임명기에 이하영 목사가 연화봉구역(연화봉교회 담임)에 임명되었고, 제7회(1939. 5. 3.-10) 임명기에는 이하영 목사가 청엽정교회에 임명된 점으로 보아 연화봉교회를 담임하던 이하영 목사가 통합된 청엽정교회를 계속 담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배처를 청엽정교회가 용산교회 예배당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이름이 바뀐 청엽정교회에 용산, 연화봉 두 교회 교인이 함께 출석하였고, 양쪽 교회의 재산이 청엽정교회에 계승되었으며, 오히려 연화봉교회를 담임하던 이하영 목사가 청엽정교회의 담임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두 교회가 대등하게 통합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교회설립연월일은 먼저 세워진 연화봉교회 설립연월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5. 1. 11.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자료관장 윤준병

윤준병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제목 : '교회 설립 연월일 확정 문제'에 대한 회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 교회 2005년 1월 4일자 의회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교회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므로, 이 추론이 옳다면 귀 교회의 설립 연월일을 연화봉교회의 설립 연월일로 올려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용산교회가 1937. 7-1937. 12 사이에 청엽정교회로 교회명칭이 바뀌었다.
2. 연화봉교회가 위와 같은 기간에 청엽정교회로 교회명칭이 바뀌었다.
3. 1938년도 재단법인 기독교조선감리회유지재단 재산목록에 청엽정교회의 재산으로 토지 청엽정 2가 71-15번지와, 청엽정 1가 62-22번지가 나오는데, 이는 각각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의 예배당이 있던 위치로 볼 수 있다. 건물로 목조합석지붕(건평 30평, 예배당)과 벽돌기와지붕(건평 25평, 구예배당)이 있는데, 이는 각각 용산교회예배당과 연화봉교회예배당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교회가 위의 기간 사이에 통합하여 청엽정교회로 교회명칭을 개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화봉교회 예배당을 구예배당이라 하고, 건평도 5평정도 좁은 것으로 보아 통합된 청엽정교회는 용산교회의 예배당을 예배처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감리교는 연회에서 교역자를 임명 파송하는데, 1935년 5회까지는 1년단위로 연회를 개최했지만, 6회(1937. 4. 7-13)부터는 2년마다 연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제6회 연회임명기에 이하영 목사가 연화봉교회에 임명되고 있고, 제7회(1939.5.3-10) 연회임명기에는 청엽정교회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있다(류형기, 추록술 선교사의 경우도 같음). 이것은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가 청엽정교회로 통합하고서도 연화봉교회를 담임하던 이하영 목사가 그대로 통합된 청엽정교회를 담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청파교회 50년사》의 30-31쪽과 92쪽의 이은택 목사에 대한 시무 기록은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 이은택 목사는 1935년 8월 17일에 미국 개럿대학으로 신학 유학을 떠났는데, 2년만에 귀국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5. 따라서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의 통합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 1) 통합 시기는 1937. 7-1937. 12 사이이다.
 - 2) 통합하여 교회명칭을 그 지역 지명을 따라 청엽정교회라고 개칭했다.
 - 3) 양 교회의 재산과 교인은 모두 청엽정교회로 통합하고, 예배처소는 장소가 넓은 용산교회의 예배당을 사용하였다.
 - 4) 담임 교역자는 연화봉교회를 담임하던 이하영 목사가 통합된 청엽정교회 담임자로 계속시무하였다.
6. 현 청파교회는 청엽정교회의 후신이고, 청엽정교회는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가 통합된 교회이므로, 청파교회의 설립연월일은 먼저 설립된 연화봉교회의 설립연월일까지 올려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5. 1. 18.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실장 김 승 태

